

광양시보건소,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중마장애인복지관·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 찾아 구강 건강관리·치솔질 방법·틀니 관리법 등 설명

광양시보건소는 최근 새로 개관한 중마장애인복지관과 광양읍에 위치한 광양시장에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은 전신

량을 이용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들과 보호자 및 시설종사자들에게 올바른 구강 건강관리와 바른 칫솔질 방법, 틀니 관리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더불어 개인별 구강상담과 검진을 통해 스케일링, 불소도포와 같은 예방진료서비스와 구강위생용품도 제공하고 있다. ‘찾아가는 구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체온

및 호흡기 증상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백현숙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건강한 구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담양군복지재단, 창립 5주년 기념식

담양군복지재단(이사장 강성남)은 지난 11일 담양군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공적부조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군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담양군 출연금 30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지난 2015년에 설립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형식 군수와 군의회 이정옥 부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담양군복지재단 경과 및 성과보고, 후원자 감사패, 우수 봉사자 시상과 복지관 이용자와 자활센터 참여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이 함께 발표회를 진행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함평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에게 ‘행복 꾸러미’ 나눔

함평초등학교(교장 정병현)에서는 코로나19 교내확진자 발생으로 등교가 중지된 학생들을 위해 행복 꾸러미를 준비하였다. 꾸러미는 원격학습 진행 중인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해양생물 마리모 키우기 세트와 마스크, 빼빼로 등의 간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생 중 24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꾸러미를 받은 한 학생의 학부모는 “갑작스러운 학교 내 확진자 발생과 원격수업으로 아이들이 우울해했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몰두할 수 있는 취미 세트와 간식까지 준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느껴져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라며 학교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함평초등학교 정병현 교장은 “코로나19 교내확진자 발생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앞으로 교내 방역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꾸러미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인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함평초등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교육 취약 학생에 대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함평초등학교에서는 앞으로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으로 대상 학생의 학력 증진 및 문화적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한 신체·정서 발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함평=김광훈 기자



운남동 지사협, 생필품 꾸러미 전달

광주 광산구 운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영화)가 지난 11일 ‘찾아가는 나눔포차 사업’으로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 주민 가정 10세대에게 100만원 상당의 쌀과 생필품이 든 꾸러미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김영화 위원장은 “각 가정에 위원들이 전화를 걸어 필요한 것을 묻는 수요조사를 거쳐 꾸러미를 마련했다”라고 전했다. 임행택 기자

장흥읍, 거동 불편한 어르신에 성인용 기저귀 지원

장흥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국선, 강경일)는 지난 9일 코로나19의 여파로 외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해 기저귀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25명에게 성인용 기저귀 3개월분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질환과 장애로 병상에 누워있거나, 거동이 불편해 기저귀를 사용해야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성인용 기저귀를 지원 받은 105세 할머니의 보호자는 “어머니가 치매증상으로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편해서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컸는데,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줘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조국선 장흥읍장은 “관내 취약계층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찾아 지원하는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